

을 상반기 슬로시티 전주학교 성료

# 전주 알리고 체험도 하고

시, 지역 초교 5~6학년 대상 운영 1840명 교육 수료... 슬로정신 확산 기여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주지역 10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66학급 18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슬로시티 전주학교는 삶의 가치관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슬로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강의와 전통한지를 이용한 조형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 슬로시티 전주학교에서 △슬로시티 운동의 유래와 의미 △전주시가 세계 최초 도심형 슬로시티인 이유 △전주정신의 개념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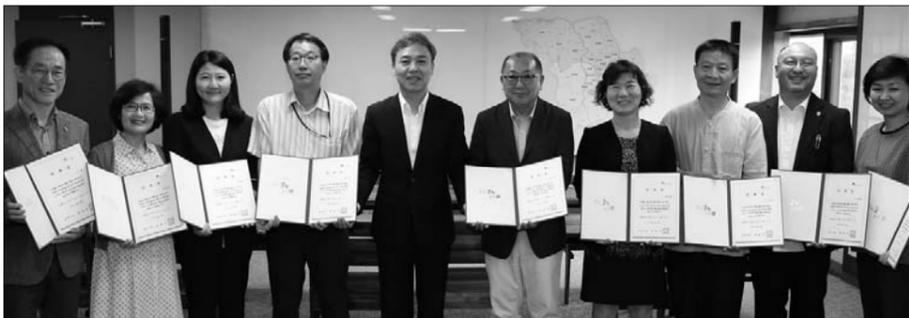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한지 조형 등 만들기 체험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도 제공됐다.

앞서, 시는 그간 전주정신과 슬로

철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과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고3 수험생 등을 찾아가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손도손'을 운영, 총 2677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주정신과 슬로철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18일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인 컨설팅단 위촉식을 가졌다.

##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끌 전문자문단 가동

시, 복지·보건·의료·주거분야 등 14명 구성 컨설팅단 위촉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자문단이 가동된다.

전주시는 18일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인 컨설팅단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컨설팅단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기획과 자문, 민·관 협의체 안전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컨설팅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일 사회보장 정책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변재관 박사를 단장으로 채우며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상희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동네돌봄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51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은 △요양병원 등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경증 어르신 중 건강상 퇴원이 가능하지만 정주 환경 등의 문제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 △재가어르신 중 고령압과 당뇨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 외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하지만 결과기간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에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의사회·한계사회·약사회 등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어르신 응급돌봄 지원사업 등 21개의 선도사업과 11개의 복지부·타부처 연계사업 등 총 32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4일 4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화재 예방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홀로거주어르신과 장애인거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 사

고를 줄이기 위해 홀로거주어르신과 장애인거주 등 주거약자를 중심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누전경보차단기 교체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통해 노후주택의 전기화재 안전망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전주시립합창단, 26~28일까지 가족뮤지컬 공연

전주시립합창단이 은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

합창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덕진예술회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인 뮤지컬 '파랑새를 찾아서'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18일 밝혔다.

벨기에 극작가 마케를링크의 희곡을 뮤지컬로 재창작한 이 공연은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아이들에게는 행복의 의미를, 부모님들에게는 위로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제작은 △예술감독 김철 △연출 김성강 △지휘 이영수 △대본 박정희 △작곡 김미선 △안무 최재

희가 각각 맡았으며 △일렉트릭 강우현 △피아노 이미르 △퍼커션 고동현이 반주에 참가한다.

또한, 극중 주인공 사립이의 역할은 오윤지 전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과 조한별 어린이(서문초 5학년)가 연기하고 노래한다.

한편, 전주시립합창단은 매년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으로 △해님달님과 선녀와 나무꾼(2015) △개구리왕자와 공주팔귀(2016) △브레멘 음악대(2018) 등 뮤지컬을 선보인다.

공연 및 티켓 예매 관련 문의는 전주시립합창단 사무실(063-251-2786)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예매사이트인 나루컬처(www.narucultur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교통사고 낸 무면허 40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자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완주IC 인근에서 도주 차량을 붙잡았다.

하지만 붙잡은 차량 운전석에선 여성 운전자 B모(50)씨가 내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이들을 추궁했고, 뒤늦게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로 지인인 B씨의 차를 몰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리를 바꾸자고 B씨를 설득, 사고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징역 10개월로 기존 형량보다 2개월 감형

유권자들에게 흉상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42)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흉상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수 측근 박씨와 지인 모 흉상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 4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담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

들과 공모해 유권자들에게 물품을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범행으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이런 제공을 약속한 점,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석훈 기자

## 상습 빈집털이 30대 체포

주택가를 돌며 빈집만 골라 고풍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9일까지 군산시내 모 자택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 상당의 고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가 일대를 배회하며 빈집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 전북경찰, '교통시설물 수사기법 공유 간담회' 열어

전북경찰이 수사전문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시설물 수사기법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최근 발생한 '차선도색 부실공사' 사건 관련, 수사기법과 정보 공유를 위해 교통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면표시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부실시공 과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기법과 정보 공유로 수사전문화를 추진한다.

/강석훈 기자

## 동서학동, 복지선진지 벤치마킹

완산구 동서학동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18일 노인분야 복지선진지(재)광주복지재단을 선정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재단의 중장기적인 복지전략 등 전반적인 사업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송효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